

# 전라남도 목포시 - 서남해의 관문에서 만나는 근대 역사와 낭만의 항구도시

전라남도 서남부 끝자락에 자리한 목포시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애환과 예술혼이 깃든 낭만의 항구도시입니다. 유달산의 장쾌한 조망, 근대역사문화지구의 아련한 풍경, 그리고 다도해로 향하는 관문으로서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목포는 독특한 매력으로 여행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목포의 눈물'이 흘러내리던 애잔한 역사 위에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목포에서 근대와 현대,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 상징, 유달산

목포시의 진산인 유달산은 해발 228 미터의 낮은 산이지만 그 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선 독특한 산세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전경은 명산의 품모를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려왔습니다. 일등바위, 이등바위, 삼등바위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오르며 바라보는 목포 시내와 다도해의 풍경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유달산 정상에 서면 목포 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앞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해질녘 붉게 물드는 서해의 노을은 유달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으로,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목포 시내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유달산 자락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성사, 유선각 등 역사 유적과 함께 이난영 노래비, 이훈동 정원 등 문화 명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등산과 함께 문화 탐방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 근대 역사의 생생한 현장

목포시는 1897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 근대역사문화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호남은행 등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살아있는 근대사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은 두 개의 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관은 구 일본영사관 건물을 활용하여 목포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 일제강점기의 수탈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2관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서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과

항일 운동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근대역사문화지구 일대는 골목마다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래된 일본식 가옥들 사이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켜져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노래가 된 도시, 목포의 눈물

목포는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일제강점기 한 맺힌 민중의 애환을 담아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목포를 상징하는 노래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유달산 자락에는 이난영 노래비가 세워져 있어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요제가 열려 목포의 음악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과 버스킹이 펼쳐져 음악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목포예술공원에는 난영공원이 조성되어 이난영을 비롯한 목포 출신 예술인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배출한 수많은 가수와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술 기행은 목포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 하늘에서 만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로, 북항스테이션에서 유달산스테이션을 거쳐 고하도스테이션까지 약 3.23킬로미터를 연결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목포 시내와 다도해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어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크리스탈 캐빈에 탑승하면 발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유달산의 기암괴석과 목포항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특히 해질녘 노을이 물드는 시간에 탑승하면 서해의 황금빛 낙조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어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목포 밤바다의 낭만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하도에는 목포해상보도교와 함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전에 머물렀던 역사적인 섬이기도 하여 역사 탐방의 의미도 더해집니다.

## 바다가 품은 문화유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본산으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완도선, 신안선 등 해저에서 발굴된 고대 선박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해양 역사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은 1976년부터 발굴된 중국 원나라 무역선에서 나온 2만여 점의 유물로,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도자기, 금속 공예품, 동전 등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700년 전 바닷길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고대 선박들은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증명합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전통 배들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관에서는 배 만들기, 매듭 묶기 등 해양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바다와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 갯바위와 평화광장의 해안 풍경

목포시 영산호 입구에 위치한 갯바위는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삿갓을 쓴 사람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갯바위는 목포의 명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실루엣을 만들어내어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합니다.

갯바위 인근에는 자연사박물관과 생활도자박물관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공룡 화석과 다양한 지질학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육식 공룡 알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끄니다.

평화광장은 목포 신도심의 해안에 조성된 대규모 광장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려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준비하여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목포의 맛, 바다가 키운 별미

항구도시 목포는 풍부한 해산물로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은 단연 세발낙지입니다. 발이 세 개여서가 아니라 발이 가늘다는 뜻의 세발낙지는 목포 앞바다 갯벌에서 잡히는 작은 낙지로, 살아있는 낙지를 그대로 먹는 산낙지가 유명합니다.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홍어는 목포와 영산포 일대에서 즐겨 먹는 발효 음식으로, 독특한 삭힌 맛이 특징입니다. 홍어삼합은 삭힌 홍어, 돼지고기 수육, 묵은 김치를 함께 싸서 먹는

남도 음식의 진수로, 막걸리와 함께 즐기면 그 맛이 배가됩니다. 처음에는 암모니아 향에 놀라지만 먹을수록 중독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목포 민어회는 여름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살결의 민어는 횡감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민어탕, 민어전, 민어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구찜, 꽃게무침, 병어회 등도 목포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들입니다.

## 다도해의 관문, 섬 여행의 시작

목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흑산도, 홍도, 비금도, 도초도 등 서남해의 아름다운 섬들로 향하는 여객선이 출발합니다. 섬 여행을 계획한다면 목포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다양한 섬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홍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 전체가 울긋불긋한 바위로 이루어져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섬 주위를 돌며 기암괴석과 동굴, 해식애 등 자연이 빚어낸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이자 최근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느린 삶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섬입니다.

외달도는 목포에서 배로 10 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즐기는 선상낚시 체험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 계절마다 피어나는 축제

목포시는 계절마다 다채로운 축제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봄에는 유달산 봄축제가 열려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한 유달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달산 둘레길 걷기 대회와 문화 공연이 함께 펼쳐져 봄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가을에는 목포항구축제가 개최됩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정체성을 담은 이 축제에서는 해상 퍼레이드, 수산물 직거래 장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세발낙지 축제에서는 산낙지 먹기 대회와 낙지 요리 시식 등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일대에서 빛 축제가 열려 화려한 조명이 겨울밤을 밝힙니다. 연말에는 평화광장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려 목포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목포의 근현대 인물

목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건립되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차범석, 김현, 박화성 등 문학인들도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하며 한국 문학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목포문학관에서는 목포 출신 문인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구도시의 애환과 정서가 이들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 목포의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정주 환경

목포시는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의 종착역으로, 목포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약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여행에도 편리하며, 목포공항에서는 서울 김포행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함께 신도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도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서남해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목포는 정주 여건이 우수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력을 갖춘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안 자이 트리츠와 같이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프리미엄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들도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목포 여행 추천 코스

목포시 여행을 계획한다면 1박 2일 이상의 여유로운 일정을 권장합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유달산에 올라 목포 시내와 다도해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점심에는 세발낙지나 민어회로 목포의 맛을 경험하고, 오후에는 근대역사문화지구를 걸으며 근대 건축물과 골목 풍경을 즐깁니다. 저녁에는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밤바다의 야경을 감상합니다.

둘째 날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해양 역사를 배우고, 갯바위와 자연사박물관을 둘러봅니다. 점심에는 홍어삼합으로 남도 음식의 진수를 경험하고, 평화광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외달도나 고하도로 짧은 섬 여행을 다녀와도 좋습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의 애환이 서린 골목, 유달산의 장쾌한 풍경, 다도해로 향하는 낭만의 항구, 그리고 세발낙지와 홍어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목포의 눈물'이 흐르던 아픈 역사 위에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가는

목포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